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학교	<h1>계수나무</h1>	발행인 : 백종철 교장선생님 편 집 : 6학년
경기도 시흥시 계수로 203 ☎ 070-7097-1973 <a href="http://gyesu-cho.es.kr">http://gyesu-cho.es.kr</a>		

**입학식**

## 동생들의 입학 후~~^^

3월 3일 월요일, 8살이 된 동생들의 입학식이 있었다. 이번에 입학한 아이들은 남자 9명, 여자 4명으로 13명이 입학을 하였다. 입학식에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장님, 신입생 가족 그리고 6학년들이 참석 하였다.



교장선생님께서 '틀러도 팬잡아'라는 동화책을 읽어 주셨고 1학년들은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다고 한다. 6학년들은 신입생의 목에 이름표를 걸어주고 학교에서 준비한 선물을 주었다. 1학년 담임선생님은 작년에 영어 과학을 가르쳐 주신 이영경 선생님이셨다. 1학년 아이들의 대부분은 학교에 와서 선생님도 좋고, 친구들도 좋다고 하였고, 학교생활이 재미있다고 하였다.

유민 기자

**전교임원선거**

## 계수초 학생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하며

3월14일 전교임원선거가 있었다. 회장에는 6학년 김세민, 부회장에는 6학년 이채현, 5학년 김수겸이 선출되었다.

전교임원후보로는 2명의 회장후보와 3명의 부회장후보가 나왔으며 1주일의 열띤 유세기간을 거쳤다. 당일 소견발표가 있는 후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투표를 하였다.

전교회장으로 선출된 김세민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기자: 어떻게 해서 전교임원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나요?

회장: 학교에서 무언가 큰일을 하고 싶었고, 많은 아이들이 도와주었고 무엇보다 엄마의 응원과 의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자: 전교회장이 된 후의 기분은?

회장: 뿌듯하고 정말 기쁩니다.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자: 전교회장이 된 후 각오는?

회장: 계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전교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민 기자

**6학년 학급임원선거**

## 6학년 학급부회장이 두 명?

6학년 1반에서는 3월 6일 목요일에 학급임원을 선출하였다. 학급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올해 6학년 1반은 부회장이 2명이 되었다고 한다.

학급임원을 선출하는 당일 6학년 1반 학생들은 회장, 부회장 순서로 투표를 하기로 하였다. 이윤택, 박준하, 황정인, 박지윤이 회장후보로 나왔었고 후보들은 준비한 멋진 소견발표를 하였다. 학생들은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하였다. 회장은 이유정 1표, 박준하 8표, 황정인 9표, 박지윤 4표로 제일 많은 표를 받은 황정인 학생이 선출되었다. 선출된 황정인 학생의 당선소감을 들어보았다.

기자: 왜 회장이 되고 싶었나요?

황정인: 우리반 친구들을 잘 이끌어 주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자: 하고 싶은 회장이 되어서 기분이 어떤가요?

황정인: 정말 기분이 좋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회장 선출을 하였고 부회장 후보는 우선영, 박준하가 나왔다. 부회장도 힘찬 소견 발표를 하였고 이어서 투표를 하였다. 부회장은 우선영 11표, 박준하 11표로 같은 표가 나와서 재투표를 하게 되었다. 재투표도 두 후보가 같은 수의 표를 얻게 되어 학생들은 놀라워했다. 담임선생님께서 두 후보의 소견발표를 다시 듣고 투표를 하자고 말씀하셨고 연설 후 3차 투표를 하였다. 3차 투표 때에도 두 후보의 표가 같이 나왔다. 3번의 투표 결과가 같이 나오자 6학년 담임선생님께서 부회장을 2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면 2명 하자고 말씀 하였고 두 후보와 학생들이 동의하고 6학년은 부회장이 2명이 되었다고 한다. 두 부회장의 당선 소감을 들어 보았다.

기자: 부회장이 왜 되고 싶었나요?

우선영: 그냥 갑자기 하고 싶었습니다.

박준하: 추천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기자: 부회장으로서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우선영: 회장을 도와주고 반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 것입니다.

박준하 : 저도 회장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민 기자

#### 과학의 날 행사

### 하늘을 날으는 물로켓

4월 11일 과학의 날 행사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물로켓을 만들어서 발사하였다. 만들면서 칼에 베이는 학생도 있고 잘못 잘라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검정색 전기테이프가 부족한 학생도 있었다.



먼저 물로켓을 완성한 6학년이 10시부터 물로켓을 발사했고 고학년부터 차례대로 30분씩 자신이 만든 물로켓을 날렸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2번씩 날렸는데, 발사된 물로켓이 땅에 부딪히며 날개가 부러지는 물로켓도 있었다. 그리고 학교숲 방향으로 날아가 나무에 걸리는 물로켓도 있었고 학교를 벗어나 도로까지 물로켓이 날아가기도 했다.



물로켓을 날리는데 6학년 박준하와 김세민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12시경에 물로켓 날리기는 무사히 잘 끝났다.



#### 식목일 행사

### 식목일에는 나무를 심어야 제 맛!



4월 4일 시흥시에서 주최하는 나무심기행사에 4, 5, 6학년이 참석하였다. 계수동에 있는 피정의 집에서 10시부터 시작한 식목일행사는 10여분의 식이 있었고 이후 나무를 심는 방법에 대

한 설명을 들었다.

사실 식목일은 4월 5일 이지만 4월 5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하루 먼저 가서 체험을 했다. 피정의 집 뒷산으로 올라가서 7년 된 묘목을 심었다. 2,3명의 학생들이 함께 삽으로 구덩이를 만들고 나무를 심고 흙을 덮는 일을 하였고 1시간 정도 나무를 심었다. 학생들은 처음 해 본 나무심기를 제법 잘 하였다. 우리가 맡은 구역을 끝내고 다른 곳까지 더 심기도 했다.



흙을 파다가 참을 캔 학생도 있었다. 학생들은 매우 놀라워하며 좋아했다. 다 심은 후에는 내려와서 간식을 먹은 후 학교로 돌아왔다.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는 처음으로 해봤기 때문에 신기하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도 되었다. 피정의 집은 수녀님들이 쉬는 곳으로, 들어가는 길에 목련숲이 꽃을 활짝 피우고 있어서 아름다웠으며 나무가 많아서 시원하고 좋았다.

우선영 기자

### 3학년 체험학습

## 강희선생묘와 갯벌생태공원 다녀왔어요.

3월 21일 금요일, 3학년이 체험학습을 갔다. 먼저 강희선생의 묘에 가서 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다음으로 갯벌 생태공원에 가서 갯벌 생태공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놀았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연꽃테마파크에 가서 태양 흑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북극성을 그곳에 있는 검색기로 검색해보았다고 한다. 또, 건물의 옥상에서 태양의 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머리카락을 대고 실험해 보았다고 한다. 이것에 대해 3학년 류덕무 학생과 인터뷰를 해보았다.

기자: 체험학습을 하고 어땠나요?

류덕무: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가봐서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으로 3학년 선생님과 인터뷰를 해보았다.

기자: 체험학습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생님: 교과서에서 간접적으로 보았던 거나 읽었던 것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체험학습을 하였습니다.

기자: 체험학습을 하고나서 소감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듣는 것 보단 보는 게 낫고, 보는 것 보단 직접 해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수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좋은 교육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행운아 들입니다.

3학년 학생들은 재미있게 다녀왔다고 한다.

류자람 기자

### 4학년 현장학습

## 산촌과 어촌을 찾아서

4학년이 촌락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양평과수림마을과 화성백미리마을에 다녀왔다고 한다.

4학년 선생님과 학생들이 3월 25일에 양평과수림마을을 가서 딸기도 따고, 달팽이 체험도 하고, 화전과 배짬도 만들었다고 한다. 일부 여학생들이 딸기 따는 것과 화전만들기는 다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라고 했지만 남학생들은 화전만 들기가 그다지 재미가 없다고 말하였다.



4월 3일은 어촌을 알아보기 위하여 화성백미리마을에 다녀왔다. 학생들은 갯벌에 가서 고동을 잡고 갯벌 마차타기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바지락칼국수를 먹었는데, 학생들은 바지락칼국수가 가장 맛있고 기억에 남으며 재밌었다고 하였다. 점심을 먹고 소래포구에 가서 수산물시장을 보았다고 한다. 비가 조금씩 내렸다고 말하다가 반복되었는데 차량으로 이동하고 점심을 먹을

때는 비가 내리고 밖에서 활동을 할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아 비가오고 추운날씨에도 체험을 즐겁게 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학생들은 어촌마을체험에서 고동잡기가 재밌었다고 하였고 또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라고 하였다.

#### 5학년 현장학습

### 선사시대 탐방

3월 26일 5학년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갔다. 장소는 지금 중학교 1학년과 6학년이 갔었던 몽촌역사관과 암사동선사유적지였다.



몽촌 역사관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유물을 볼 수 있는 곳이고 암사동 선사유적지는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다.

암사동 선사 유적지에서 전시관 관람을 하였고 여자는 사슴부족, 남자는 돼지부족으로 나뉘어서 불 피우기 시합을 하고 나무에서 밤과 도토리를 주워서 구워 먹었다고 한다. 몽촌토성역사관에서는 영상실에서 발굴 과정과 유물 등을 배우고 전시실에서 신석기 시대 유물 관람 후 점심을 먹었다고 한다.

5학년 친구들이 몽촌역사관과 암사동 선사유적지를 간 이유는 사회 1단원에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가 나오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발굴을 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었고 밤은 사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었다고 했다. 또, 다음에 밤을 먹고 기념품도 받은 암사동선사유적지에 다시 한 번 가보고 싶다고 했다. 그 두 곳은 같이 있기 때문에 구경하기도 쉽고 가본다면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는 좋은 곳이다.

우선영, 황정인 기자

#### 문화예술체험학습

### 꿈을 키우는 문화예술체험

계초등학교 학생들은 3월 18일부터 문화예술체험활동을 시작하였다. 문화예술체험활동의 종류는 뮤지컬, 전자밴드, 어쿠스틱밴드, 사진이 있다. 뮤지컬은 분홍병사 팀과 모글리 팀으로 나뉘어져 있다. 뮤지컬에서는 안무와 보컬 연기수업으로 나뉘었다고 한다. 전자밴드에는 일렉기타, 퍼커션, 드럼, 베이스기타, 건반, 통기타가 있다. 어쿠스틱밴드에는 통기타, 키보드, 드럼 카혼이 있다. 사진에서는 이론을 배우고 있다고 한다. 뮤지컬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재미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자밴드 학생들은 악기를 옮겨야 해서 힘들다고 하였다. 어쿠스틱밴드 학생들은 재미있다고 하고, 사진부에 있는 학생들은 조금 재미있다고 한다. 앞으로 문화예술체험활동이 기대된다.

유민 기자

#### 한교소식

### 동아리 활동으로 함께해요.

올해는 교과서로 배우는 공부 외에 다른 활동을 원하는 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만들어진 동아리는 피구 동아

리, 만들기 동아리, 새 키우기 동아리, 몸짱 동아리가 있다. 각 동아리들은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동아리 회원들은 모집하였고 회원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이 재미있어서 좋았어요.’, ‘앞으로도 동아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등 동아리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도 동아리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 같다.

김세민 기자

## 계 · 수 · 어 · 린 · 이 · 숲 · 씨 · 마 · 당

### 독후감

### 다양하다는 것

카렌족 족장님께

안녕하세요? 족장님.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4학년 정연주입니다. 다양하다는 것은 생김새, 형태, 문화, 종교들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좋은 점은 편견을 갖지 않고 공평한 생각을 하고 모두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양하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읽은 카렌족 여성들의 전통은 다양함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카렌족 여성들이 목에 고리를 끼우는 것은 위험하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더운 날에는 고리 안에 땀이 차서 불편하기도 하고 쇠고리가 고리에 눌러 아프기도 합니다. 또, 여성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고리를 빼는데 생명이 위험합니다.

따라서 여자들의 목에 고리를 끼는 문화는 없어져야 합니다. 족장님 여자들이 목에 고리를 끼는 풍습을 없애 주세요.

족장님, 안녕히 계십시오.

2013.7.26.

카렌족 여자들이 고리를 안끼기를 원하는 정연주 올림

## 수학 귀신을 보고서 수학귀신에게...

To. 수학귀신

안녕! 난 계수초에 다니는 6학년 유민이야.

항상 이상한 꿈을 꾸는 로베르트의 꿈속에 나와 수학을 가르쳐줄 때 나는 네가 너무 부러웠어. 수학을 너무 잘하니까 말이야.

그리고 많이 신기했었어. 왜냐하면 하늘에다가 너의 지팡이로 썼더니 진짜 써지더라! 그 점이 좀 신기했어.

‘제공’이라는 단어를 ‘깡충’으로 바꾸어 말하는 너의 모습에 우스꽝스러웠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제공’이 쉽게 느껴지더라고...

어쨌든 너는 수학을 잘해서 부러워. πππ  
안녕~

From. 유민

### 시

### 봄

유샘

하얀 나비 누굴 찾아왔나?

노랑노랑 개나리

알록달록 진달래, 꽃,

향기 찾아왔지

나비야 나비야

나한테 오렴

따뜻한 봄에

### 뭇 바

김세민

집에 가는 길

전봇대가 날 본다

뭇 바

집에 가는 길

풀들이 날 본다

월 보

집에 가는 길  
하늘과 구름이 날 본다  
월 보

집에 가는 길  
벌레들이 날 본다  
월 보

집에 가는 길  
사람들이 날 본다  
월 보

집에 가는 길  
엄마가 날 봤다  
사랑해

우 · 리 · 반 · 활 · 동 · 모 · 습

유치원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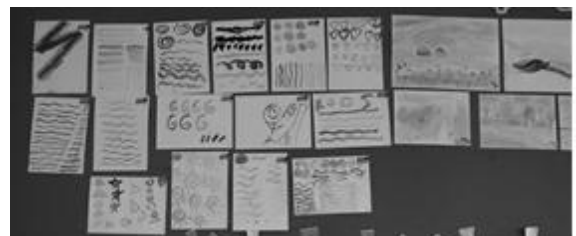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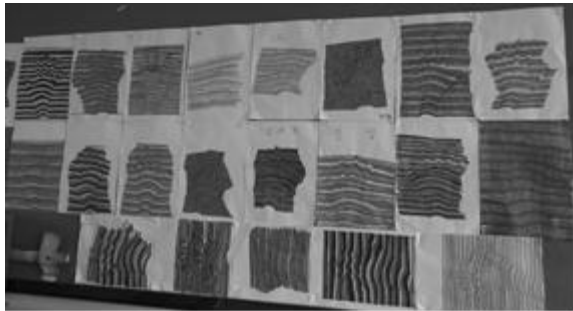


3학년



4학년



**5학년****6학년**

계수나무는 학생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학교 신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풍성한 학교신문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